

포천 신읍동 포실포실 공동체



포천 Net Zero 포비마켓



'포실포실'은 포천을 살기 좋은 집으로 가꾸고(抱·室), 안전한 먹거리를 나누며(包·賣) 지역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2021년 탄소중립과 먹거리 운동을 위한 학습 모임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공유 공간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활동 기반을 닦았습니다. 현재 포실포실은 생협 및 환경단체 출신의 활동가, 요리 및 환경 교육 전문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와 디자이너 등 다재다능한 청년들이 한데 모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거점
카페콩당

자원순환거점

공유주방
커뮤니티

로컬
순환경제

주민 주도

추진실적

-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거점 '카페콩당' 조성
- 생활권 내 상시 자원순환 가능 공간 확보
- 투명페트·종이팩·폐전자·폐의약, 현수막/의류 등 총150kg 이상 수거
- 포비마켓 월회 운영, 기후미식회 3회 이상, 생활용 워크숍 개발 및 지속가능 운영 조직(주민 서포터즈)
- 분리배출 보상 지원 및 지역노인일자리 배치로 인한 지속가능 프로세스 및 인력 기반 구축

사업성과

- 데이터 기반 자원순환 거점운영의 초기모델 구축
- 지역주민 참여구조 형성
- 공간 기반의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 지역기관·단체와의 협력(거버넌스) 구축
- 지역농산물: 안전먹거리, 탄소발생 감축, 리필스테이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등

